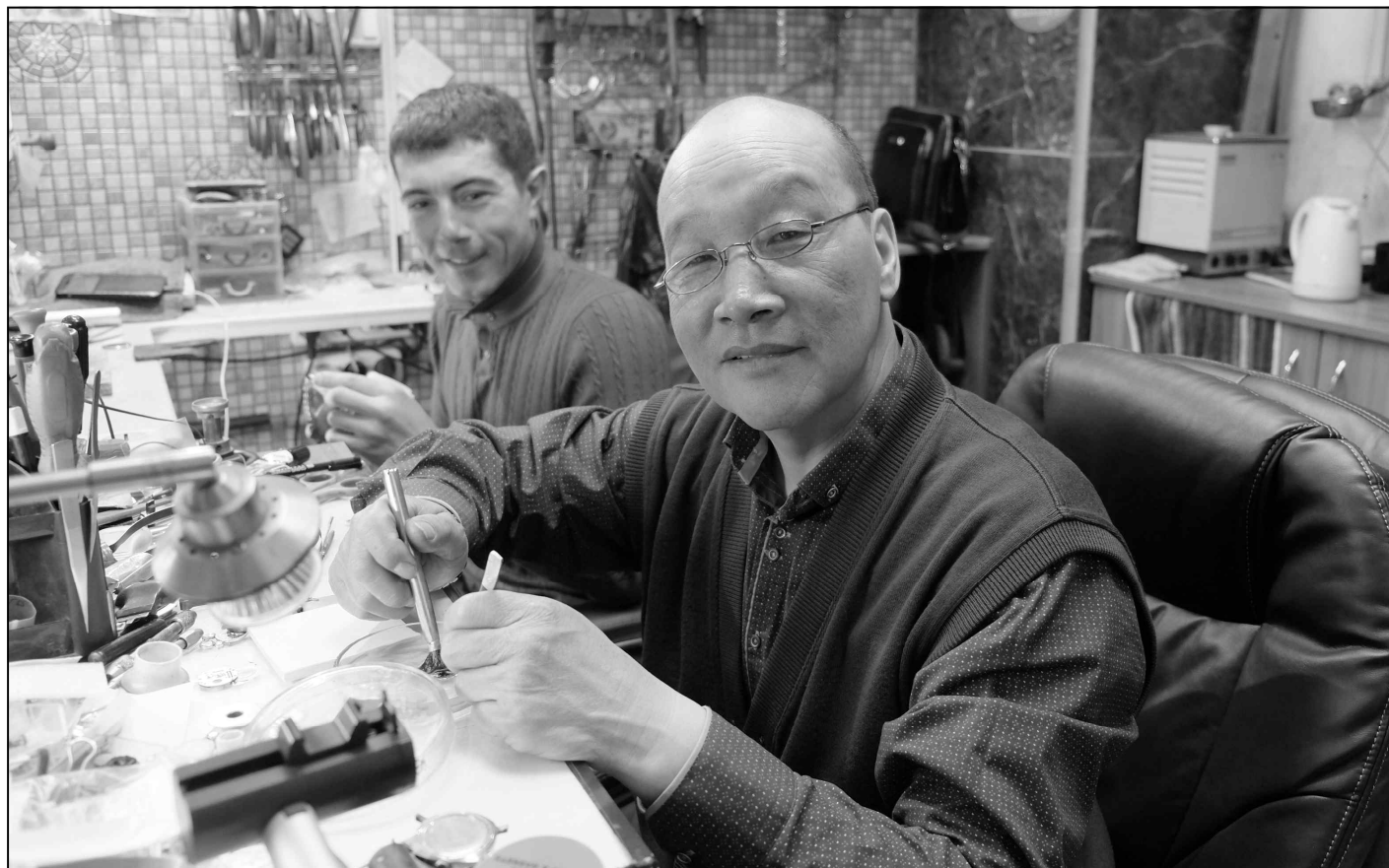


|  |   |   |
|--|---|---|
| сахалин주<br>사회정치신문<br><br>Общественно-<br>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2018년 3월 16일(금)<br>..(음력 1월 29일)..<br>Пятница<br>16 марта 2018г.<br>№ 10(116777)<br>1949년 6월 1일 창간<br>-----<br>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오는 3월 18일 러시아에서 서비스 및 공공산업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1986년에 펜자주 막산장애인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임동아 씨는 시계수리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개인기업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 곳에 시계수리점을 두고 있다. 그의 부인도 시계수리사이다. 임동아 씨는 서비스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로 인정되어 여러 번 시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취재: 이에식 기자)

## 단신

### 사할린에서 알파인스키 아시안 컵대회 출발

지난 14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르니 위스두호>스키장에서 2018 알파인스키 아시안 컵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국제스키연맹 대륙 컵 중 하나인 극동 컵(FIS)으로 아시아 및 유럽 16개국을 대표하는 선수 150여 명이 참가했다. 사할린에서의 국제대회는 4번째로 개최되고 있다. 경기는 활강·회전·대회전·슈퍼 대회전과 알파인 세부종목으로 이루어져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은 갈수록 번성하는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환영하며 격려했다. 첫날 120명의 선수들은 슈퍼 대회전에 출전하여 승부를 다투었다.

### 사할린에서 극동 인구통계학 실시 경험 전국에 확산

제4회 극동 인구통계학 발전 전국 컨퍼런스가 3월 말 사할린에서 처음 개최된다고 지난 12일(월) 투자위원회 회의 결과로 극동 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이 밝혔다. 현재 사할린 지역은 이민자와 자연적 인구증가, 인구통계학적으로 긍정적인 역학지표와 증명된 실험을 보여 주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가 실시한 우수한 인구통계학 프로그램의 경험을 극동지역에서만 아니라 러시아연방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은 강조했다.

### 사할린 수산업체, 명태 11만7000톤 어획

현재 오후즈크해에서 어선 202척이 명태와 청어 조업을 하는 가운데 사할린 어선은 24척이다. 3월 13일 현재 총어획량은 명태 55만5000톤, 청어 5만9000톤이다. 그중 사할린 수산업체들의 어선들에서의 어획량은 명태 11만7000톤과 청어 1만여 톤이다. 현재 오후즈크해에서 기상 상황은 악천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양 작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난 13일(화) 연방수산업 포트리 샵추크 부청장이 주재한 연상회의에서 밝혔다. 사할린 명태·청어 조업 상황에 대해서는 파벨 콜로투쉬킨 사할린주수산업체연합회 부회장이 보고했다.

### 3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나브루즈' 다민족 축제 개최

3월 21일은 국제 나브루즈(노루즈)의 날이다. 나브루즈는 봄의 첫날과 자연의 소생을 축하하는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축제이며 약 3000년 전부터 발칸 반도, 흑해, 중앙아시아, 중동 등, 무슬림 국가들에서 전세계 3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념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바쉬키리아, 다게스탄 등지에서도 이 명절을 민족명절로 기념한다. 사할린에서도 100여 민족이 거주하는 가운데 해마다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는 나브루즈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번에 3월 17일(토) 가까운 휴식공원에서 대규모로 나브루즈를 맞이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민족 디아스포라들의 예술단 공연, 민족 의상 쇼, 민족 요리 시식, 플로브 요리교실, 전통 씨름, 전시회, 박람회 등으로 이루어지며 행사는 12시에 시작한다. 축제는 사할린주 민족연합총회가 주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 3월 18일은 대선일이다

3월 18일은 러시아 대선일이다. 대통령 후보자로는 8명(바부린 세르게이, 그루지닌 파벨, 지리놉스키 블라지미르, 푸틴 블라디미르, 솅차크 크세니아, 수라이킨 막심, 지토프 보리스, 야블린스키 그리고리)이 출마했다. 사할린주에는 320곳의 투표소가 마련되었고 그의 선박들에서 열리는 임시투표소는 약 160곳이 준비되었다. 거주지등록주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선거하고자 하는 주민 수는 약 1만 6000명으로 이들은 사전 신청을 해놓았다. 선거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감시단도 소집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회원은 선거 감시를 위한 참관인들을 투표소로 파견한다. 이와 관련해 주사

회원과 협력합의를 체결한 사할린주한인회의 추천으로 대다수 지방의(홀스크, 코르사코브, 아나와, 돌린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등) 한인회 관계자들이 여러 투표소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투표소들에서는 대선과 함께 지방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이뤄진다.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는 사할린업체들이 생산하는 식품(과자부터 우유, 육류, 해산물 등까지)을 도매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내 14개 지방자치체에서는 <스타들이 사할린에서>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을 방문한 30여명의 러시아 유명 아티스트들이 시민들과 함께 투표하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사기자)

## 제1회 <고향의 아침> TV영화제 시상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회 전국TV드라마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축제 일환으로 영화 상영, 음악가들의 공연, 유명감독·배우·작곡가들과의 만남 등이 이뤄졌다. 지난 14일(수) 폐막식에서 <낙천주의자들>드라마(감독 알렉세이 포포그롭스키, 프로듀서 왈레리 토도롭스키)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블라지미르 꼬트(<표트르 레센코 있는 것 전부.>),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콘스탄틴 하벤스키(<트로츠키>),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엘리자베타 보야르스카야 (<안나 카레니나>), 남자 조연상은 막심 마트웨예브(<혁명의 악마>), 여자 조연상은 갈리나 페트로와(<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가 받았다. 음악상은 니콜라이 로스토브 작곡가(<예카테리나. 떠오름.>), 특별상은 배우 알렉세이 셉첸코(<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 공로상은 소련 인민배우 마르크 자하로브 감독에게 시상했다.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3월 7-10일에 고려인(한인) 연구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김 워토리아 연구가가 사할린을 찾았다.

새고려신문사는 사할린에서 그의 일정을 협조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최근 5년간에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김 워토리아에게 자기소개, 연구 활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할린 방문 소감을 부탁했다.

- 우선 김 선생님의 뿌리를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일찍 헤어지셔서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외가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러시아인이시고 외할아버지께서는 고려인이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대신 해주셔서 그런지 저는 한인의 뿌리, 한민족 문화와 언어,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많아요.

외할아버지께서 교육과 지식을 통해 성장하는 길을 가르쳐주셨지요. 이걸 늘고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제관계, 한국학을 전공하시게 된 이유는요?

- 16살 때 타슈켄트 대학에 입학해 국제경제를 전공했어요. 수학교도 잘 하고 국제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했죠. 동시에 세종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사실 국제관계이다보니 그 당시 대학에서 여러 유럽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연구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운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우즈베키스탄 외교통상투자부에 취직했어요. 첫 일자리는 경제전문가 겸 장관의 공식 통역원이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저를 불러들여서 저는 스스로 직접 미국 휴킨스 대학 대학원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찾아 공부하게 되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주로 한반도, 미국-한반도 관계 연구를 했고 이로서 한국학 석사를 받았죠. 고려인(한국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몇 년 후에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적인 연구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첫 큰 연구 프로젝트는 많은 비디오, 사진자료를 이용하고 인터뷰

# 사할린에 다시 와서 동포 1, 2, 3 세대 연구하고 싶습니다

## 김 워토리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가와의 인터뷰

김 워토리아 (35세, 기혼)

**학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 동양학대학 (국제관계경제학과) 1999-2003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 (석사 과정) 2005-2007년, 영국 볼튼대학교 대학원(국제언론 석사과정)/ 중국 베이징 국제관계대학대학 대학원 - 2013-2014년

**추가 교육과정:**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아르헨티나) 철학 및 문학과 과정, 사진학교 과정

플로렌치아(이탈리아) 영화국제학교,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적자원센터 경영학 분야 국제인증 부문 이수

**언어:** 러시아어(모국어), 영어·스페인어 (유창), 프랑스어·이탈리아어·우즈베크어(고급 수준), 독일어·한국어(중급 수준), 중국어(말하기 - 중급)

**경력:** 우즈베키스탄 외교통상투자부,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 세계은행 등지에서 근무, 그의 여러 나라에서 강연 활동.

**연구활동:** 우즈베키스탄 등 고려인연구, 중앙아시아 나라들에서 노동이민문제 실태 조사 등

**취미:** 현대사, 문학 독서, 영화, 사진, 음악, 여행, 스포츠, 산책



- 선생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녀오시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으로 오셨는데 조선공화국 방문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에 가보았는데 이번 방문으로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관광하기가 어렵고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행 내내 계속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여행코스 자체가 제겐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우리 관광그룹은 함경북도를 기차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155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함경북

도를 통해 작성한 고려인 연구(1937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 이주/추방 역사 포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잃고 찾은 것>입니다.

- 워토리아 연구가는 유럽, 미국 지역에서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연구가 주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봐요.

- 네, 맞습니다. 살다 보니 저의 삶의 실무 언어는 영어가 되었고 고려사람에 대한 자료, 그리고 강의도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도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블라디슬라브 선생님이 운영하는 <고려사람. 독립국가 연합 고려인들에 대한 메모>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고 2017년은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와 관련한 수많은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주로 러시아어로 발표했습니다.

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를 찾아갔었습니다. 고려사람의 역사 기원을 찾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고려투어 여행사는 북한, 시베리아, 몽고, 중앙아시아 등 익스트림 역사문화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새로운 코스로 평양에서 기차로 함경도(함경남도과 함경북도)를 통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라선(나선)까지, 거기에서는 버스로 두만강(중국 경계와 러시아 하산 사이)까지, 그리고 기차를 갈아탄 후 하산,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슬픈 아름다움으로 가득찬 자연, 특히 바다 근처 산 위에 자라나는 낮은 키의 소나무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만난 일반 서민들은 정말 매우 친절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닫혀 있는 나라임이

사실이고... 나라 내 교통도 많이 부족하고 기차도 모든 일반인들이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양과 지방, 촌 지역과의 삶의 격차는 대단히 비교됩니다.

- 사할린에 오신 동기과 소감은요?

- 동포 디아스포라 연구가로서 사할린에는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곳 동포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좀 알고 있거든요.

새고려신문사 덕분에 3일간 최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할린의 문학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허 로만 시인, 양 세르게이 작가, 장태호 작사가, 주명수, 조성용 화가 분들과 만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진 울리아 역사 연구가는 저에게 향토박물관과 체호브 책 <사할린 섬> 박물관,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안내해 주었고 사할린 역사, 동포 역사에 대한 재미있는 개인 강연을 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을 찾아 어르신들과 시한인회 관계자, 여성회 회원분들과의 만남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시한인회에서는 제가 저의 연구활동과 북한 방문에 대해 발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에 있는 사할린동포회생위령탑 앞에서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러시아어로 허 로만 시인이 번역한 김민환 교수의 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음이 울컥 했고요...

사할린의 명승지인 <고르너 워스두흐> 스키장도 가보고 <고향의 아침>제1회 전국드라마축제 개막식을 관람할 기회도 주어졌어요.

일정이 정말 짝짝했어요.

저는 사할린에 다시 와서 동포 1, 2, 3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관련돼 있는데 앞으로 사할린한인 연구프로젝트도 제대로 조사하여 소개하고 싶습니다.

-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 사할린한인연구도 기대하겠습니다.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4기 <음악과 아이들> 기획 시작

3월 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일반학교, 유치원과 문화교육기관 등에서 <음악과 아이들> 지역 예술 창작기획이 4 번째 시작되었다.

이 기획의 참가자는 3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들은 제1아동음악학교, 제2, 제4 아동예술학교, 중앙아동음악학교,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아동미술학교와 시립 챔버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들과 예술단들이다.

이 기획의 설립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문화국이다.

기획 행사 중에는 공연, 문학·음악 구성의 연출, 공예전시회, 미술강사들의 계몽적 활동교실이 있다. 그외 기획의 일환으로 시립 챔버오케스트라는 어린 관객들에게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페차와 늑대>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체 예술창작기획 <2018 음악과 아이들>은 공연장을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어린 관객들은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과 출연에 이미 여러 시 기관의 학생들이 초대되었다.

11월 22일에는 <음악과 아이들> 기획을 마무리하며 축하 공연과 재능 청소년들에게 시상할 계획이라고 시 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четвертый сезон проекта "Музыка и дети"

13 марта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учреждениях культу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чался четвертый сезон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Музыка и дети".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свыше 300 человек. Это солисты 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ДМШ №1, 5, ДШИ №2, 4, ЦДМШ, "Этноса", ДХШ и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Учредитель проекта —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лице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Среди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екта концерты, литературно-музыкальные композиции, выставки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его рамках городско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редставит юному зрителю симфоническую сказку Прокофьева "Петя и волк".

Муницип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Музыка и дети — 2018" охватит огромную аудиторию. Зрителями станут свыше 2 тысяч юных горожан. На концерты и выступления уже приглашены воспитанники и учащиеся ряда учреждений города.

Завершится проект "Музыка и дети" 22 ноября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ей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мэра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특수장애아동을 위한 명절을 조성

<열린 마음>클럽은 3·8절 기념 행사를 맞이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특수장애아동이 있는 가정들을 초대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오락 프로그램과 달콤한 제과와 케이크로 다과회를 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최 측의 자원봉사단체인 <마스터 광대>가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콩쿠르들을 진행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쉬면서 서로 명절을 축하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행사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3명의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에게 선사한 창작 선물로 9세의 아나 세메뉴크는 노래를 불렀고, 위카 마칼리예와와 나스자 가추렐렌코는 시를 낭송했다.

러시아 여성연맹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부장 엘레나 스톨라와에 따르면 올해 <열린 마음>클럽은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이 클럽에는 다운증후군, 자폐증, 뇌성마비 장애아가 있는 70여 가정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사들은 엄마들이 아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보살피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행사에서 우리는 어머니들과 5월 5일에 '장애인권리를 위한 국제투쟁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포럼 진행에 관해 논의했다."고 스톨라와와 지부장은 말하며 "포럼에서 특수장애아의 어머니들은 행사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초대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 그 문제 중 하나는 18세 이상의 장애 청년들의 채용 및 취업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열린 마음>클럽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한 전통적인 행사와 만남 외에도 창의적 활동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활동교실은 2월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다고 행사 주최 측은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аздник для семей с особенными детьми

Клуб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организовал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8 Марта. На него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емьи, имеющие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Для ни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чаепитие со всевозможными сладостями и тортами. Пока волонтеры из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тер клоун" проводили с ребятами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мамы могли отдохнуть, поздравить друг друга с праздником и пообщаться.

Трога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творческий подарок своим мамам от трех детей: девятилетняя Аня Семенюк исполнила песню, а Вика Макарьева и Настя Гацуленко прочитали стихотворение.

(8면에 계속)

사할린의 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러시아 사할린에서 오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중환 회장님, 시노인회 안영수 회장님, 사할린주 여성회 김웨철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통일 대구청년협의회 청년들은 지난 12년간 러시아 사할린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며 수많은 애환의 역사를 듣고 두 발과 눈으로 현장을 걷고 둘러보며 세계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인적자원 수탈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낯선 타국 땅에 홀홀단신으로 남겨진 동포들의 피 끓던 분노와 애증,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낯선 타국에서 받은 차별과 함께 눈물나는 안타까움도 함께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15회의 사할린 방문을 반복하며 접했던 같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동포들의 안타까움은 지금도 가슴 한쪽 깊은 곳에 고스란히 저에게도 아픔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2일 사할린 한인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에트노스무용단의 초청공연은 대구시민들과 함께 한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의 아이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에트노스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나라 잃은 슬픔의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근면과 성실로 사할린 사회에서 우리한인들의 위상은 타민족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삶을 이루며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장미공원에서 모듬북, 아리랑 연주를 함께 감상하며, 다시금 그들의 비운의 과거사를 시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매번 사할린에서 '대구의 밤' 행사를 준비하며 지새우던 밤들도 여러 차례 지났습니다.

벌써 3번째 사할린의 한인 손님들을 대구로 초청해 '사할린의 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안타까운 만남.... 이제 그 오랜 노력의 결실인 '사할린의 밤'이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선조들의 형제자매이기도 하고 또한 후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 같은 언어를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자명한 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의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할린의 밤'에는 영주귀국 동포 등 220여명의 한인 후손들과 5명의 사할린 한인회 지도자분들을 초청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손님맞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열과 정서를 공감하시고 그 애뜻함의 현장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과 애민하는 실천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 대구에서 민족의 열과 흥을 함께 경험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청년들은 통일의 초석, 전쟁의 상흔으로 흩어

## 제3회 "사할린의 밤" 성공개최!



진 내 민족 챙기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더욱 일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에서 개최된 제3회 사할린의 밤 행사의 성공개최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족통일 대구청년협의회 회장 하태균

**참고:** 지난 12년간 사할린 현지를 방문하여 대구의 밤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정을 나누었고, 주한인회와 매년 광복절 행사를 공동주최함으로써 사할린에서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할린의 역사를 담은 서적 2권을 발간했고,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비롯한 총 5회에 걸친 사할린 사진전을 개최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를 대구에 초청해서 사할린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1회 때에는 김포, 한강신도시, 제천, 대창양로원에서 160명, 박순옥 이산가족회장, 김홍주 노인회장, 김춘경 소망회장, 배순신 새고려신문사장을 비롯한 사할린 현지 지도자 13명이 참가. 제2회 때에는 김해, 음성, 제천, 양주, 파주, 대창양로원에서 220명의 귀국동포가 참여. 제3회 때에는 양주, 인천, 원주, 양산, 대창양로원에서 220명이 참가하고 사할린 현지에서 림중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장, 안영수 노인회장 김웨철 여성회장을 비롯한 5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주한인회, 주노인회, 주여성회, 유즈노사할린스크지역 <소망>어린이창작발전협회, 우리말방송국, 새고려신문사, 사할린경제법률대학, 에트노스 예술학교, 코르사코브시 예술학교, 네웰스



크시 예술학교를 후원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청년들의 사할린 사업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다.

대구 청년들의 초청으로 사할린경제법률대학교 강영복 총장, 부총장 등 대구방문(2009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2009년, 2017년), 주한인회임원단 대구방문(2012년), 바부쉬키니 빼스니 민속무용단 초청공연(2010년, 2014년), 네웰스키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공연(2014,2016년), 박 블라디미르 네웰스키 시장 대구 방문(2014년), 사할린경제법률대학교 학생 12명 대구문화체험단 초청(2010년, 2011년), 하바롭스크시립 고를린카 무용단 초청공연(2015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무용단(2017년) 공연이 이뤄졌다.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ЕРНУТЬСЯ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ЛУЧШЕ УЗНАТЬ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нтервью с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икторией Ким

**- Виктория,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о ваших корнях.**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г. Ташкенте, в смешанной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Отец с матерью расстались очень рано, поэтому вырастила и воспитала меня мама, а помогали ей в этом родители – моя русская бабушка и корейский дедушка. Дедушка с младенчества заменил мне отца, отсюда и моя тяга к корейским корня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языку, ну и,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к корейским диаспорам.

Дед научил меня читать, писать и считать, и заложил во мне корейскую и конфуцианскую мод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оста – через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нания, за что я ему до сих пор остаюсь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ой.

Со временем этот интерес из сугубо личного, превратилс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в професс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я-корееведа я смогла в итоге привнести и свою семейную историю, что само по себе является, на мой взгляд, большой удачей, ибо ведь не всякая работ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дновременного самопознания, самораскрытия и, в целом, творчества.

**- Почему Вы выбра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Этот выбор был для меня изначальн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определенным,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егким. В 16 лет я выбрала для себя карьеру экономиста-международника, хотя помимо знаний легко дающейся математики меня всегда больше интересовали гуманитарные предметы – языки, история и литература.

Но в 1990-е годы, у закончившей в 16-17 лет одиннадцатилетку молодежи, было три достойных профессии на выбор – врач, экономист и юрист – именно такую модел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финансового успеха диктовала новорождающаяся в те времена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и я в итоге выбрала второ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 начала учить примерно в то же самое время в Ташкенте в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ющей и довольно известной школе Седжонг. Выбор на корейский пал по сугубо личным мотивам, ведь для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я уже параллельно изучала в институте несколько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ов.

Опять-таки сказались семейная история, любовь к заложившему в меня все “азы” деду и наша корейская фамилия Ким – ну какая же я Ким без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 я себя “упрекала” в то время в душе.

В будущем все это мне очень пригодилось и помогло в дальнейшем освоении профессии корееведа. Но сначала была первая работа – мне повезло по распределению попасть из института на гос. службу и, будучи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шу страну – Узбекистан –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качестве экономиста и официального переводчика министр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Так родилось желание расти дальше и учиться за рубежом –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меня отпускать не хотели, но 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лучила стипендию от университета Джонса Хопкинса и уехала на учебу в Америку, где в итоге и получила звание магистр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г. Вашингтоне.

Корееведом я и там стала не сразу, так как в начале мой фокус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дипломат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азвитие в целом. Но стипендию на второй год учебы мне тогда дали именно корейцы на только что открывшемся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факультете корееведения... и ход истории был предопределен.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это,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я не могла найти в корееведении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так как мне, как выходец из Узбекистана, сложно было найти собственное “место под солнцем” в треугольнике США-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 который и делался упор на нашем факультете.

Мои корейские предки остались в далеких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полях и степях, и именно через них и всю “глобальную” историю миграции, и добровольных и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пересел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з разрушенной и обескровленной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19-го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го века Кореи, мне и удалось в итоге выбрать и обрести в корееведении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и фокус.

**-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Вас больше знают в западном мире, ведь большинство Ва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убликаций выполнены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правда. Так уж сложилось, что за годы жизни моим рабочим языком стал английский, и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их публикаций о Коре Сарам –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ах бывшего СССР – я выпустила именно на нем, равно как и провела на английском большинство своих лекций.

Но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мы очень плотно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Узбекистана, поддерживая связь 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России и остальных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ак, например, я печатаюсь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блоге В.В. Хана “Коре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СНГ”, а в прошедших в 2017-м году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на тему 80-лет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большая часть моих докладов и выступлений была на русском.

**- Перед тем, как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Вы побывал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Чем запомнилась Вам эта поездка?**

Эта поездка вообще была для меня очень особой и запомнилась многими моментами и вещами. Начнем с того, что туристам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пасть не так-то просто – это, как известно, самая изолированн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с момента своего создания существующая в режиме тоталитарной диктатуры, и свободного доступа, а тем более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 ней, иностранцам просто напросто нет. Поэтому, чтобы попасть туда, необходимо специальное разрешение и въезд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для официально укомплектованных групп по согласованным маршрутам,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гидов.

Скажем прямо, такой вид туризма меня никогда особо не привлекал. Но в то же самое время, я всегда хотела попасть на самый север КНДР, в провинцию Северный Хамген и увидеть своими глазами те места, откуда наши корейские предки совершили исторический переход в Россию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 почти 155 лет назад. Вернуться к самым истокам диаспоры Коре Сарам всегда было моей мечтой, и вот такой момент наступил и та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тало для меня возмож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Коре Турс”, занимающаяся экстремаль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культурным туризмо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ибири, Монголии и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била перв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на самый север КНДР –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пассажирском поезде из Пхеньяна через весь Южный и Северный Хамген в свобод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Расон, изолированную от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уже оттуда автобусный маршрут до самого Тумангана на границ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йским Хасаном и переход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ю на поезде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 – в Хасан и далее Владивосток, через места первых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Приморь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от маршрут в точности воспроизводил маршрут моей мечт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 многом поразила меня – суровой и печальной красотой своей природы, особенно на севере вдоль линии мор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где невысокие сосны на вершинах холмов лесными грядками нависают над самой крошкой моря...

Приятно удивили меня и люди – необычайно радушные и невероятно искренние, несмотря на всю строгость, официоз и абсолютное отсутствие какой-либо человечности в партийной линии и рамках их режима.

Поэтому любое, пусть даже самое ограниченное общение с этими людьми казалось всем нам наполненным особой важностью, а расставание с новыми друзьями было особенно эмоциональным, ведь никаких средств связи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у гражда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ту

В целом я поняла, что люди продолжают стараться жить нормальной, мирной и по-своему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ью даже в таком аномальном и 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хеньян – это активный и деловой город, люди в нем с утра пораньше, пешком и на велосипедах, спешат на учебу и работу под звуки военных маршей и радостной пропаганды с идеями Чучхе, вечерами пьют пиво, ездят на метро, некоторые даже ходят в рестораны и играют в боулинг.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бстановка, конечно же, намного скучнее, беднее и хуже – никакого передвижения на транспорте там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люди до сих пор пользуются повозками, запряженными быками, а единств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сечь страну из одной точки в другую – это поезд, и попадают на него далеко не все, так как само по себе перемещение граждан внутр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граничено и возможно лишь только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опускам, которые выдают очень немногим.

**- Цель Вашей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Ваш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острова?**

На Сахалин я мечтала попасть очень давно, так как была наслышана о нелегкой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ю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мне было на что здесь по-

**Виктория Ким, 35 лет.**

Родной язык - русский. Владеет английским, испанским (свободно, почти родной); французским, итальянским, узбекским (продвинутый уровень); немецким, корейским, устным китайским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Окончила с отличием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жонса Хопкинса/Школа продвинут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АИС (США) (степень магистра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Болто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 Пек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НР) (степень магистра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Получ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Буэнос-Айрос (Аргентина), Флорентий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иношколе Новое Возрождение (Италия), Узбекско-Японском Центре развития людских ресурсов (Япо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т.д.

Имеет опыт работ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Центре изучен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мени Эдвина Райшауэра (Университет Джонса Хопкинса САИС), Всемирном банке и т.д.

Занимает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Одно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священо узбекским корейцам. Часто выступает с лекциями по теме Коре Сарам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мир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проживает в Пекине (по работе мужа).



смотреть и в плане основ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и природы, и в плане теплоты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ринимающих меня людей.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вашей редакции за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дня мне удалос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стровом и его обитателями по программе максимум.

Запомнили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стречи с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поэтами Тэхо Чаном и Романом Хе, писателем Сергеем Яном, художниками Дю Мен Су и Де Сон Еном, ученым-исследователем Юлией Дин. Юлия провела для меня персон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музеям книги Чехова и краеведения, показал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ыми были и встречи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бабушк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ахалина и активистами и членами правления городской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частности,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и почетно рассказать им о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делиться первы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недавней поездки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ажным звеном нашей программы была поездка в порт Корсаков на гору Грусти, где стоит стела в память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запомнились строк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им Мун Хвана (в переводе Романа Хе) о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ах, всю жизнь прождавших на сопках вокруг этого порта, так никогда и не прибывших с далекой родины Кореи кораблей. А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самом памятнике – остоле корабля, устремленного прямоком в небо – до сих пор наводят на глаза слезы...

Мне удалось побывать на нашем знаменитом горнолыжн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а также на первом в России фестивале телевизион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открытие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ось в эти же дни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Есть ли желание приехать сюда еще?**

Да, у меня осталось огромное желание вернуться на Сахалин и узнать побольше деталей об истории жизни первого,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агедия корейцев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 это та часть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ую должен знать каждый. Должны мы знать все ее детали и в рамках нашей общей советской истории. Большинство моих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работ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священы диаспоре Коре Сарам,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м в Среднюю Азию –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 в далеком 1937-м году, насильно увезенным со своей роди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деюсь, в моих будущих проектах я смогу более детально отразить и историю первы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при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и 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для которых этот суровый, но по своему прекрасный край, в итоге стал настоящей Родиной.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готовиться к предстоящим переменам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двух месяце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изойдут важные перемен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едстоящими в апреле межкорейским и в мае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аммитами. В этой связ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ложились условия для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построения мир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12 марта встречи со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и помощниками. По его словам, если саммиты пройдут успешно, то это принесёт большие перемены для всего мира.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важным шансом. Вместе с те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сложно делать только оптимистичные прогнозы, поскольку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никому не удавалось достичь кардинального измен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будет силой, которая приведёт к успеху. Он попросил народ страны, а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перников - консерваторов и либералов - выйти за рамки своих узкопартийных интересов и объединиться ради успеха предстоящих саммитов.

## Си Цзиньпин: Китай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л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ближайший сосед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итай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л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еула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 поиску путей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Пекин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чальником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Чон Ый Ёном.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а также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ашингтона и Пхеньяна ради норма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посетил Кита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общить китай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об итогах своих визит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США. Он передал Си Цзиньпину приглаш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посет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еул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Кроме Си Цзиньпина, он встретился также с членом Госсовета Китая Ян Цзечи и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ан И. Глава китайского МИД приветствовал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и наметившиеся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тметив вклад Китая в их организацию. В тот же день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Со Хун провёл встречу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Таро Коно, передав ему позицию Пхеньяна о готовности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Таро Коно назвал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преддверием "чуда"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твердило закон о сокращени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13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состоявшемс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утверждён закон о сокращени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одобрены 35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в трудов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был одобрен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28 февраля. Он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1 июля. Речь идёт о сокращени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с нынешних 68 до 52 часов в неделю. Действующе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40-часов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работу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о в течение пяти рабочих дн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ботать ещё максимум 12 час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пускаются 16 рабочих часов в выходные дни. Однак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 законом э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16 рабочих часов запрещены. За сверхурочную работу в выходные дни длительностью до 8 часов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150% штатного оклада. Если восьмичасовая отметка превышена, то оплат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до 200%.

## 97% вузов РК снизили или сохранили о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ая часть вуз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бо заморозила на прошлогоднем уровне, либо снизила оплату за обучение в первом семестре. Так поступили 97,3% из 330 вузов, работающи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осемь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 четырёхлетней системой обучения пошли на увеличение оплаты.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этого указываются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ухудшение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оступающих,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модернизации вузов.

(RKI)

## 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ПОСЛЕ ПХЁНЧХАНА: НЕОЖИДАН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Говорят, чт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большой спорт и большая политика идут рука об руку. В истории О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остались игры не только своими спортивными рекордами и чест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под девизом «citius, altius, fortius» (лат. «быстрее, выше, сильнее»), но и взаимным бойкотом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Особенно массовым был бойкот летних Олимпиады-1980 в Москве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 Запада) и Олимпиады-1984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со стороны стран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Не утихают допинговые скандалы вокруг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чиная с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Сочи 2014 года. На XXIII-х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прошедших с 9 по 25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в уезде Пхёнчх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оссийские олимпийцы лишились права выступать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и под сво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флагом. Но не этим вошла в историю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а начавшимся прорывом из острой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Чрезвычай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ангажированность стала причиной тому, что журналисты прозвали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2018 года (2018 Winter Olympics) Полимпикс (от англ. "Polypmics", где заглавная буква «P» означает слово «Policy», т.е. «политика»). Опасения, ч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гасят факел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се вернется на круги своя, оказались напрасными. Хотя мало кто предполагал такое стремительное мирное сближение противоборствовавших сторон и появление перспектив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ризиса. Саммит Севера и Юга робко прогнозировался экспертами, но мало кто предрекал возможную встречу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учитывая совсем еще свежие жесткие и острые выпады, звучавшие с обеих сторон.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появились на горизонте?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требует тщательного анализа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временем. Ясно, однако, одно, что новый виток в спирал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стал возможен в силу стечения ряда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причин.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склонны считать, что нынешнее сближение Пхеньяна и Сеула – это успе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результат расчётливой политики молод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Другие полагают, что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демокра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приступила к выполнению предвыборных обещаний решить кризис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одственным соседом по ту сторону 38-ой параллели.

Безусловно, к началу Олимпиады Пхеньян получил в руки сильнейшие козыри и доказал всему миру, прежде всего, Вашингтону, Сеулу и Токио, что он обладает боеспособными ядерными зарядами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способными достичь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ША. Ядерная кнопка на столе – это сильный аргумент в рука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евера ценой невероятных усилий и затрат, вопреки всем запретам и барьерам, сумел реши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и на ближайшем месяце само собой отп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новых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Стоит напомнить, что до недавнего прошлого Сеул и Пхеньян взаимно ставили жестк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которых объявлялись воз-



можными двух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Сеул требовал именно прекращения испытаний 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А Север,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зко выступал против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манев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настаивал на отправке янки домой и решать все вопросы между собой, между самими корейцами – «ури минжок кири». В связи с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были перенесены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Ради участ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лимпиад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орван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еул пошел на другие уступки. Начиная, как писала «The New York Times», с согласия дозаправки солярк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удна с музыкантами и танцорами из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и допуска его в прибрежные воды Южной Кореи. Уступки касались также допуска в страну Ким Ё Чжон, сестры Ким Чон Ына, Ким Ён Нама -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и друг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лиц, включенных в американские «черные» списк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арлам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одобрил выделение 2 млрд 860 млн вон (2 млн 652 тыс. долл.) на приём север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бывших на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Отдельно проходят расходы (25 тыс. долл.) на пребывание группы подготовки к гастроля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Кроме того, Южная Корея потратила 240 млн вон (223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иём с 9 по 11 февра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состоявшей из 22 человек.

И наконец, Фонд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делит 130 млн вон или 121,5 тыс. долл. на расходы по пребы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 Пхёнчхане на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от такая получилась бухгалтерия участ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Полимпиаде» 2018 года в Пхёнчхан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

## В день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организуют выездную торговлю и встречи с артистами театра и кино

С утра 18 марта вблизи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звернется продажа свежей и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от булочек и пирожных до молока, свинины и деликатесных даров моря.

Все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сразу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н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торговать в день выборов, – рассказала Инна Павленко,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ни сразу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и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отгружают товар в районы.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в рамках выездной торговли 18 марта местная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ся по цена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о есть, в среднем на 15-25 процентов дешевле, чем обычно в рознице. Такж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уют дегустации новинок из своего ассортимента.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 мероприятие всенародное, – заметил директор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Сергей Добряев. – В нем всегда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оэтому и выездная торговля 18 марта обещает быть удачной. Тем более, мы сегодня боремся за каждого покупателя. Поэтому будем торговать свежим охлажденным мясом в разделанном виде, а также яйцом. Часть продукции уже вчера отгрузили и на Курилы.

Не останутся в стороне от событ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везды театра и кино, прибывш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рамках акции «Звезды на Сахалине». 18 марта в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а побывают более 30 ведущих актеров и актрис. Среди них, в частности,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Сергей Степанченко, снимавшийся в фильмах «Ближний круг», «Чокнутые», «Солдат Иван Чонкин», «Жизнь в красном цвете», сериалах «Next», «Сыщики», заслуженные артистки Ольга Кабо («Приключения Квентина Дорварда, стрелка королевской гвардии», «Сирано де Бержерак», «Комедия о Лисистрате», «Мушкетеры двадцать лет спустя», «Две стрелы. Детектив каменного века», «Королева Марго») и певица Нина Шацкая («На углу у Патриарших», «В круге первом»), Сергей Барышев («Улицы разбитых фонарей», «Бандитский Петербург», «Тайны следствия») и Ольга Будина («Граница. Таежный роман», «Земский доктор», «Простые истины», «Д.Д.Д. Досье детектива Дубровского», «Московская сага»). Своих любимых артистов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 составе «звездного десанта» также актеры популярных сериалов «Деффчонки», «Солдаты», «Молодежка», «Счастливы вместе», «Кухня»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районов, близлежащих селах и поселках приезжие артисты проведут фотосессии, дадут автографы. А вечером в Домах культуры состоятся творческие вечера. Зрители смогут спеть вместе со звездой любимую песню в караоке или задать интересующий вопрос. Вход на мероприятия – свободный.

Также в день выборов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организуют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региона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А посетителям библиотек и музеев расскажут об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и основных вехах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удвоила объем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2017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14,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мер 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выросло на 7 тысяч человек и достигло 191 тысячи – это около 4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жителей. Приоритет в оказании помощи отдан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мся –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инвалидам и пенсионерам.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субъекте сейчас действует внушительный перечень из 120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соцподдержки, отметила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этот пакет был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ен, но и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ен. Наряду с этим важной задачей остается повышение адресности помощи.

Мы должны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омога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которые не в состоянии себя обеспечивать,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которые тяжело болеют и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 отметила на коллег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уезжают из региона, но оставляют за собой здешнюю прописку, а их дети,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ют пользоваться островными льготами родителей, например, по оплат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Бывает и такое, что пользуются льготами сразу в двух регионах – по прописке и фактическому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Также они, не проживая в области, получают разные выплаты, которые им зачисляются на карточку. Считаю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на островах нуждают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хотя бы исходя из того, что здесь выше цены. Думаю, мы должны отработать механизмы, чтобы поправить эту ситуацию.

В 2017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ведены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асающие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семей с детьми. Среди них, например,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компенсация расходов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выплаты многодетным на покупку жилья (в составе которых четверо и более детей) и автомобиля (имеющим пять и более детей).

Сахалинцам, награжденным медалью «Материнская слава», нача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е путевки. А тем из них, кто воспитал 7 и более детей, удостоившись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Родительская слава», – еди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дресная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оказывается молодым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у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ребенок. Им компенсируют расход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мплекта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Отдельным категориям семей – многодетным,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мате-

рям-одиночкам, молодым и тем, у которых есть дети-инвалиды, положена ежеквартальная адрес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С 6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увеличен размер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дежд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з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статком.

С эт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выплачивать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Получить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могут женщи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Установлена и федеральная выплата – она введ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сказал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Весь этот внуш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формирует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й накануне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министр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регионе позволило вывести его в лид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м показателям: растет рождаемость и снижается смертность, отмечен положительный миграционный баланс,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Считаю, что это во многом заслуга работников социальной отрасли.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начала расти и эту тенденцию необходимо закрепить,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Требуется, по его мнению, уделя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 поддержке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выделено 4,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70 лет установлено право бесплатного проезда на транспорте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городского 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сообщения.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жил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 виде ежемесячных, ежеквартальных и ежегодных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лечения, бесплатного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успешно выполнили важнейшую задачу, которую обозначил Президент, – по ликвидации очередности на стационарное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Сеть областных соцучреждений была расширена на 220 мест.

В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открылись филиа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та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селе Углезаводск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заработал открытый в 2016 году углегорский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т на 165 мест.

В реги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ы реабилитаци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В ее составе –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которое вскоре переедет в новое здание, а также уже начавший работать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ПОСЛЕ ПХЁНЧХАНА: НЕОЖИДАН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одобрили курс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ом. Однако, в стране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и принципами были и есть недовольные такой политикой. В преддверии Олимпиады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итинг активистов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сближени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диктаторским режимом» и з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еньяне в своих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целях, передала BBC. Участники митинга рвали портреты Ким Чен Ына и жгли флаги КНДР и еди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анды Севера и Юга,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Ёнхал Ньюс» (Yonhap News).

Понятно, что и Сеул, и Пхеньян использовали Олимпиаду в качестве площадки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диалога. Неслучайно, в Пхёнчан прибыла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Ким Ё Чжон – сестра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ервая и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ящего клана Кимов. Делегацию КНДР возглавил Ким Ён Нам – формальный гла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передала президенту Мун Чжэ Ину письмо от Ким Чон Ына, в котором выражалось желание улучш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езидент Мун, как сообщалось в прессе, дал согласие на встречу, если для этого будут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Что имелось ввиду под «условиями» умалчивалось, но все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на «перегрузку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ую запустили в Пхёнчхане, по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и согласие Вашингтона,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жесткую позицию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веру. Миллионы зрителей стали свидетелями того, что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американск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Майк Пенс отказался даже обменяться приветствиями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елегатами.

Однако, холодная реакция Вашингтона на начавшийся диалог Пхеньяна и Сеула, не остановила Мун Чжэ Ина в его желании совершить прорыв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этому он отправил в столиц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елегацию во главе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Чон Ый Ёном – начальником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5 мар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 Ким Чон Ыном был обсужден широки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обсуждались острые моменты, касающиес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провед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и другие. Встреча за ужином длилась более 4 –х часов и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ключе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в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Ли Соль Чжу – супруга Ким Чон Ына и замес-

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ТПК Ким Ё Чжон – сест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побывавша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В результате виз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евер и Юг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ести третий по счёту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 конце апреля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 Пхеньян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создании горячей линии связи между главам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о создани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групп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и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д встречей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первого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глав Севера и Юга Кореи.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Чон Ый Ёна,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выразило готовность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и услов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режиму. Пхеньян выразил также желание начать диалог с США для налажива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обсуждения проблем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азалась от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 обещала не применять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обычное или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Ким Чон Ын выразил понимание в обязательствах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ове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с США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перенесённых в связи с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Мун Чжэ Ин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результаты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Пхеньяне. Известно,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Чон Ый Ён и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Со Хун отправятся в США, чтобы ознакомить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и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ю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визита делегации в Пхеньян. С такой же целью Чон Ый Ён посетит Китай и Россию, а Со Хун – Японию, тем самым все страны-участницы отложенного до неопределенного срока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будут информированы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ереговорах, состоя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ока шла работа над завершением очерка, пришла горячая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обсуждается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он Ы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конец мая,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Ассошиэйтед Пресс (AP). Она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лидер КНДР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дальнейши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озможная встреча Трампа и Ким Чон Ына стала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современной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Состоится ли первый самми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США и что он может принести? Вот об этом будет следующий очерк.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3~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 개최 예정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한인회장대회를 이 기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 대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폴먼 옛 시드니 올림픽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2000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세계한인회

장대회는 그간 5~6월경에 개최되다가 2014년부터는 '세계한인의 날(10월5일, 2007년 제정)'을 전후해 열리고 있다.

10월 3일~6일은 추석연휴(9월 23일~26일)가 지난 기간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이때 모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일, 개최장소 등을 결정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다.

시드니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

장과 대륙별 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분규지역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드니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계획 외에도 동포사회 현안을 토론한다. 주시드니총영사(또는 대양주총연합회 회장) 환영만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오찬, 동포사회 탐방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월드코리아, 이석호 기자)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 재외동포재단,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 정체성 교육 위해 도서·전통문화용품 지원

복지·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외동포 위해 지원 늘려나갈 것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지난 10일 베트남 건너

터서 소재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아동을 위해 한국 도서 1,500여권과 전통문화용품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 지원은 베트남으로 귀환 한 여성과 우리국적의 한-베트남 아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별거 상태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베트남으로 귀환 시, 이들의 자녀는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양국의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증식에는 이영선 재외동포재단 부장, 이희경 재외동포재단 과장, 한-베 함께 돌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국민인 이들은 당연히 우리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을 포함해 소외된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베 함께 돌봄센터'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가정해체로 귀환한 베트남 여성과 자녀들의 정착지원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개관하였다. 센터 내 어린이 도서관은 1만 권 보유 가능한 규모이나 현재 도서량은 1,200여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말로 깨닫다]

###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곳과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은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과 공간이 정해진 노래는 기억의 선율이 되어 과거를 불러 옵니다. 언제나 그 때가 돌아오면, 항상 그곳에 가게 되면 추억이 그리움이 됩니다.

장소가 정해진 곳에는 노래비도 많습니다. 옛날 노래인 <목포의 눈물>이나 <울고 넘는 박달재>, <연안부두> 등과 최근에는 <여수 밤바다>, <양화대교>까지 장소가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추억의 장소가 가사 속에 더 많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것은 크리스마스 가 아닐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가사는 잘 담아 들려줍니다. 계절에 관한 노래도 많지만 아무래도 특정한 날이 아니어서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봄에는 봄의 노래가 좋고, 여름에는 여름 노래가 좋습니다.

최근의 노래 중에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계절에 맞물려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곧 벚꽃이 피고, 또 이 노래가 들리겠네요. 날짜와 관련된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노래는 '시월의 마지막 밤'이 들어가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헤어짐이라는 감정이 쓸쓸한 가을 날 시월의 마지막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웬지 10월 31일 밤이면 이 노래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일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에 관한 노래가 많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하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토요일 오후나 토요일 밤은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이와 데이트도 많았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를 들으면 젊은이들은 절로 즐거운 몸짓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로 바뀌고 나서는 토요일에 대한 노래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요일 밤이 훨씬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앞으로 금요일에 관한 추억을 살리는 노래가 더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일마다 특별한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요일이 들어간 노래 중에서 시간이 흘러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수요일은 안 되고, 비 오는 수요일이어야 하니까 1년에 몇 번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삶에 비 오는 수요일이 나타날 거고, 그 때마다 문득 빨간 장미가 떠오를 겁니다. 즐거운 그리움입니다. 실제로 장미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송이를 살까, 한 다발을 살까 망설인다면 노래가 추억이 된 사람입니다.

<새벽기차>, <풍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등을 부른 이두헌 선생은 요즘 소극장 운동과 마음 음악회에 열심입니다. 화려한 공연보다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작은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통기타 한 대만 들고 두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연은 노래에 담긴 사연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노래는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노래와 친해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서로의 소박한 진심을 만나는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소극장에서 울리는 기타소리와 노랫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그리움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소극장이나 작은 음악회에서 추억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두헌 선생의 대학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대학로에서는 예전처럼 소극장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에서 그리운 뮤지션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공연을 보는 순간도, 돌아와서 기억을 되살리는 순간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추억이 되고 마음에 토닥임이 될 겁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화성시 복사꽃 행복학습마을, "함께 배우며 정을 나뉘요"

화성시가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복사꽃 행복학습마을' (향남읍 LH 7단지)이 13일 개강식을 개최했다.

2012년에 조성된 복사꽃 행복학습마을은 동포들이 낯선 고국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학기에는 사할린 동포 32명과 마을 주민 23명, 총 55명이 입학해, 오는 5월까지 한국어, 손뜨개, 요가, 댄스, 컴퓨터, 웃음치료 등에 참여하게 된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은 "복사꽃 행복학습마을은 주민들과 사할린 동포들의 사랑방이자 평생 학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사꽃 행복학습마을은 봄, 여름, 가을 3학기 운영되며,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재능기부 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경인종합일보)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Елены Столяровой, в этом году клубу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исполнится пять лет, и сейчас в нем уже более 70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с болезнью Дауна, аутизмом, ДЦП.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ногих мам, на чьи плечи ложится воспитание и уход за больным ребенком, пообщ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решить различные вопросы и получить совет.

— На прошедшем мероприятии мы с мамами обсудили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борьбы за права инвалидов, 5 мая, — рассказывает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 На нем мамы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хотят поднять самые острые проблемы и найти их решение с помощью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дна из них — проблема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дростков-инвалидов, достигших 18 лет.

Кроме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встреч для мам и детей "Открытое сердц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ервый мастер-класс состоялся в феврал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и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детям, обща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 주 도서관, 바둑 교실 열어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주 도서관은 논리적 바둑연구 그룹에 추가모집

을 공고했다.

바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전략 내용이 담긴 대중적 보드 게임의 하나이며 여러 평가에 따르면 이 게임은 2000년에서 5000년 전에 생겨났다고 한다.

바둑수업은 매주 토요일 13시 사할린주 일반과 학도서관 국제협력정보센터(2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부영사 타카히로 마추모토가 지도한다.

흥미진진한 바둑교실 그룹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45-25-47로 등록할 수 있다고 도서관은 전했다.

##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лагает сахалинцам научиться играть в го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объяв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в группу по изучению логической настольной игры го.

Го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тарейших и популярнейших настольных игр в мире с глубок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возникла она,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от двух до пяти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в 13:00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торой этаж). Ведет обуча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ице-консул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ацумото Такахио.

Записаться в группу по изучению увлекательной настольной игры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45-25-47,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회장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인정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은 언제나 "어르신들 오늘 건강이 어떠세요?"하고 염려하여 주시고, 노래 한 곡이라도 같이 불러 저희들의 기분을 돋우어주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이에 우리 노인정 할머니들은 감사하며, 아울러 사업에 보람을 느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귀택에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노인정 할머니 일동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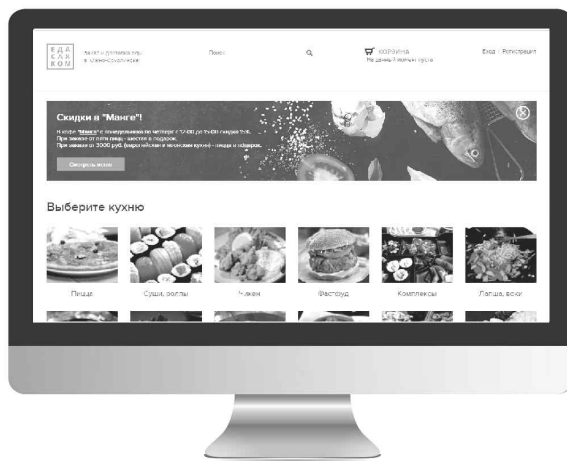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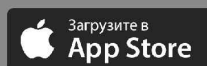
###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